

Facial translocation을 통한 거대 두개저 혈관섬유종의 근치적 절제술 증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세현 · 윤현철 · 한동희

배 경 : 거대 비인강 혈관섬유종은 양성종양이지만 매우 공격적인 국소 침습력으로 주위의 두개저, 혈관, 신경 등 중요장기에 침범하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두개강 내로 침범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목 적 : 비인강 혈관섬유종의 치료는 완전한 수술적 절제이나 중두개와 및 해면정맥동까지 침범하는 거대한 비인강 혈과 섬유종의 경우는 두개강내로 확장하여 뇌신경 및 내경동맥 주변으로 침윤할 뿐 아니라 비인강을 종양이 가득 차지함으로써 수술적 접근시에 많은 제한적 요소가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이러한 병변의 제거를 위해 안면치환을 통한 두개안면절제를 시행하였고 이 수술결과를 기존의 다른 수술적 접근법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환아는 14세 남자로서 2000년 7월부터의

우측시력저하를 주소로 타병원 안과외래 내원하여 부비강 내종양으로 진단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 시행한 전신문진소견상 우측시력저하와 코막힘등의 증상있었으며 이학적검사상 우측시력은 불빛인지만 가능하였으며 안구돌출과 우측비인강내 거대한 종물이 관찰되었다. 2000년 9월 시행한 조직검사상 혈관섬유종진단하에 2000년 10월 신경외과와 공동으로 안면치환술을 이용한 두개안면절제를 시행하였다. 수술소견상 종물은 우측비인강내를 가득이 메우며 두개강저를 침범하여 내경동맥관을 미란시키며 내경동맥과 유착되고 해면정맥동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현재 수술후 6개월째로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상태로 재발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